
발 간 사

『인간·환경·미래』는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에서 글을 모아 펴내는 학술지다. 인간환경미래연구원은 인문학의 통합 연구를 지향한다. 『인간·환경·미래』도 문학, 사학, 철학 등 세분화된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그 모든 전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망라한 글모음이 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한 곳을 깊이 파들어 가는 연구의 의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 분야의 천착의 결과는 서로 연계되고 정성스레 통합될 때 비로소 인간 삶의 전체 모습을 조명하는 데에 기여 할 수 있는 법이다. 『인간·환경·미래』는 바로 그와 같은 조명을 위한 논의의 터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간·환경·미래』는 인문학의 울타리 안쪽으로만 시야를 고정하지도 않겠다.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른 학문 영역과의 접경 지대로까지 시선을 넓히는 모험도 감행할 작정이다. 사실 인간에 관한 탐구가 인문학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인간은 우선 자신을 둘러싼 자연환경 그리고 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둘러싸도록 스스로 조성해놓은 두꺼운 각종의 인위적, 사회적 환경과 씨름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존재다. 따라서 인간 삶의 전체 모습을 제대로 조명하고자 한다면, 인간을 둘러싼 넓은 의미의 환경을 자신의 문제로 또는 자신의 방법으로 다루어온 여러 학문 영역들과 접촉하고 관계 구축을 모색함이 당연하다.

주로 과거의 것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것에 관한 인식 획득을 목표로 할 때에는 효율적인 분업의 표시로서 학문의 경계선 긋기가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인간 삶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로만 그 전체 모습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의 추적 위에 미래의 전망과 기획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삶은 이미 참된 삶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환경·미래』는 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한다. 기왕에 통용되던 학문 세계의 경계선 굵기를 맹종하며 그 중 한 곳을 우리의 정처로 삼아 손쉽게 특색을 확보하려들지는 않겠다. 그런 식의 안주보다는 지금부터 새로운 특색을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환경·미래』는 미래에 기투하는 인간, 어쩌면 영원한 미완일 수밖에 없는 인간 삶을 글로써 구현하는 학술지가 되리라고 믿는다. 그것이 정말 인간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또한 닦고자 하는 인문적 사유의 진정한 특색이기도 할 것이다.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장 박 정 호